

일-가정 균형을 위한 지역사회의
자녀 돌봄 지원 실태에 대한 연구
-서울, 경기지역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Supporting Situation of the Community Child Care Service
for the Work-Family Balance

- Focused on Dual Income Families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총괄팀장 조성은^{*}
여주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지영
성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국장 한지수

Headquarters for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Project Planning Manager : Cho, Seong Eun

Yejoo Institute of Technology, Dept. of Social Welfare

Professor : Jee Young Jeong

Seongbuk-Gu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General Manager : Jisue Ha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support systems of the community child care services for optimum work-family balance. For this purpose, the questionnaire to

* 주저자, 교신저자: 조성은 (sechor@paran.com)

be completed combined four areas: the workplace, school, community and home. Then questions concerning demographic factors and community-related aspects were analysed for this article. After analyzing 197 questionnaires, supplementary questions were asked, by interview to 10 samples. Full-time working wives (eg. working from 9am to 6pm) who have 1 or more children under 10 years old,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ere collected as sampl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 care from family and relatives, and community services was properly used during the week, but dual working parents took complete charge of child care on Saturdays. Second, emergency child care was usually provided by the family, while relatives and community child care services were used less. Third, parents spent 17% of their monthly income on total child care expenditure. Fourth, community child care services were not used often, but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m was very high. Finally, they used relatives' services for safety reasons and community services for location, and only based on informed decisions.

Therefore, Saturday child care programmes need to be initiated to help physically and mentally tired parents, with more general provision of positive and diverse public support systems.

Key Words : 자녀 돌봄 서비스 (child care service), 일-가정 균형 (the work-family balance), 지원 실태 (supporting situation), 공적 지원 체계 (public supporting system)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가족정책 사업 중 하나는 ‘일-가정 균형’ 정책이다. 이 정책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대상은 2세대 핵가족으로 구성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의 부모세대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직장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 노동으로 신체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시간적 압박을 받게 되어 상대적으로 개인적 조정이 가능한

가족 돌봄 시간에는 투입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녀 세대인 아동, 청소년들도 가사노동을 분담할 수 있으나 대체로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를 뿐이어서, 전업주부 가정 등 다른 가정형태에 비해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부모는 일-가정에서 불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다.

한편 한국 정부는 최근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낮은 출산율로 고민하고 있다.¹⁾ 저출산 원인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여성의 교육기간 연장, 이로 인한 결혼의 지연, 여성의 사회적 성공에 대한 가치가 중요해지는

1)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보건통계 2008’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한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193개국 중 최하위인 1.2명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8.5.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22/2008052200021.html). 또한 최근 유엔미래보고서에서도 2018년 한국의 사회문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저출산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저출산 현상 혹은 이로 인해 파급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주간조선, 2008.11.17. 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1/11/2008111100798.html).

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책적 차원에서는 일-가정 균형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노동에 대한 가치가 커지는 것에 비례하여 출산의 지연과 거부 증가가 증가하기 때문에 파악된다. 이로 인해 국가발전에 있어서 미래의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치명적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것은 일-가정 균형이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넘어 일터와 사회의 주요 관심사이며,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명백히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의 사업 방향을 제시한 「새로마지 2010」²⁾에 반영되어 있다. 이것은 크게 저출산 대책, 고령사회 정책, 기타 정책으로 분류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출산 대책 : 자녀출산과 보육관련 정보 제공, 부모교육, 저출산 정책관련 정보제공, 임신, 출산, 양육관련 교육 및 상담, 보육 및 양육관련 돌봄 서비스 제공
- 고령사회 정책 : 노년기 부부 가족생활 교육, 노년기를 위한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 준비 프로그램, 노년기 부부대상 평생교육,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 기타 정책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전문 인력양성,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경영사업, 일-가정양립을 위한 남성대상 육아·부모교육·가족생활·가사노동 교육화

국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여성이, 혹은

부부가 출산을 포기하고 일을 선택하는 것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가정 균형을 위한 노력은 국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개별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이는 그만큼 현재의 정부정책이 잘 실행되고 있지 않거나 정책 자체가 세밀하게 현실적으로 구성되지 않아 틈새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일-가정 균형을 위한 지원을 생활영역에 따라 직장, 학교, 지역사회, 개별가족 측면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직장, 학교 측면에 관한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고 보여진다. 즉 직장과 관련되어 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원확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출산, 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등이 이와 관련된다. 그리고 교육청을 통해 행해져온 방과후 학교 확대,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등이다(대한민국정부, 2006). 그러나 지역사회와 관련된 지원대책, 그리고 개별가정 인척간 지원되던 관계망의 약화와 지역 내 관계망의 단절로 인한 지원책은 타 영역에 비해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균형을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할 정책적 제안을 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어서 지역사회 측면에서의 요구와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관련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정책

2)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06년 6월 7일 보건복지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정부에서 2006년에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위한 2010년까지의 기본계획 시안의 브랜드를 '새로마지 플랜 2010'이라한다. '새로마지'의 의미는 '새로움'과 '마지막'이 합성된 신조어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부터 노후의 마지막 생애까지 희망차고 행복하게'라는 국가의 인구복지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또한 '새롭게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라는 슬로건과 함께 행복을 상징하는 '세 잎 클로버'를 심볼로 삼고 있다.

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관련된 요구와 어려움 분석을 통해 일-가정 균형을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할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맞벌이 가정의 평일과 놀토의 지역사회 자녀 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는 어떠한가?
- 위급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자녀 돌봄 서비스의 이용 실태는 어떠한가?
- 맞벌이 가정의 돌봄 지출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종류별 이용 만족도는 어떠한가?
-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이용 이유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지역사회에서의 일-가정 균형지원 실태과악을 위해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가정 균형과 관련된 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권장하며 시행중인 다양한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 일-가정 균형과 관련된 정책은 보육정책과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제는 양성평등적인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에서 있어서 아버지의 참여와 함께 휴가·휴직정책의 보편화와 활용률 제고 및 양육지원에 관심을 두는(최은영, 2007)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책서비스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지역사

회, 직장, 학교에서의 돌봄 서비스 지원이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별 균형까지도 고려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시행된 일-가정 균형 정책 중 지역사회 내에서의 양육과 관련된 일-가정 균형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의 서비스는 주체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공부문, 민간비영리부문, 민간영리부문, 비공식 부문 등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공공부문은 정부나 지방자치체에서의 서비스, 민간 비영리부문은 기업 후원이나 정부 지원금을 받아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민간영리부문은 사설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 각종 학원 서비스와 학원을 통해 제공되는 돌봄 및 식사제공, 유료 공부방 등의 서비스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비공식 부문에서의 지원은 부모, 형제, 친척, 이웃 등을 통한 지역사회 내 지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정책적 제언 개발을 위해 이중 민간영리부문과 비공식 부문을 제외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비영리부문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분석하여 보았다.

우선 공공부문에서의 양육지원은 정책적으로 영아보육 활성화, 취업부모 지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책, 일-가정 양립 사회 시스템 구축,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을 목표로 국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때 양육지원 중 공공부문에서의 지역사회 영역과 관련된 대표적인 지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이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2007년 35개 지역에 서비스를 시작으로, 2008년 65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실시 중에 있다. 서비스의 주 내용은 아이돌보미를 양성하여 “양육자의 질병, 야근, 출

장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탄력적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용 시간당 5,000원을 기준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국가 지원금이 차등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한 달 80시간 이내라는 사용시간의 제한이 있어 맞벌이 가정의 경우 정기적인 이용을 통해 양육 대체서비스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아이돌보미지원사업, <http://www.idolbom.or.kr>).

민간 비영리부문에서의 양육지원서비스는 ‘아가야’ 사업으로, 부모들이 원하는 시간에 영·유아를 돌봐주는 맞춤형 보육시설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SK와 연계한 기업 연계형 일자리)을 한국YMCA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전국 16개 지역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이 사업은 시간제로 부모들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실시하는데(정지영·조성은, 2008),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이 적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 외의 민간 비영리부문에서의 지역사회와 관련된 양육지원 서비스는 아동양육 부모들의 필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겨나서 조합을 이루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을 들 수 있다. 마포지역에서 1994년 ‘우리어린이집’과 1995년 ‘날으는 어린이집’이 각기 설립되었는데, 공동육아연구원(현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부모와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현재의 보육문제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부모참여형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구상하여 설립한 것이다. 이후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우리어린이집은 1996년 방과 후 교실을 마련하였고, 1999년 도토리 방과 후 어린이집으로 독립하였으며, 날으는 어린이집은 2000년 풀잎새 방과 후 교실이 독자

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독립하였다. 이후 2002년 ‘참나무어린이집’, 2005년 ‘성미산어린이집’이 추가되어 현재 마포지역 공동육아는 4개의 어린이집과 2개의 방과 후 어린이집이 있으며, 조합원의 대부분은 어린이집 주변에 모여 관계자들과 출신 가족들 2000여 가구가 마을주민으로서 살아간다. 이 조합은 또한 온라인상에서 공동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한겨레 21, 2002.1.30.; 성미산 마을의 역사와 현재, www.mapocoop.org/data/pds.htm). 그러나 이러한 양육지원 서비스는 특정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적인 욕구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외에 방과후 시설 및 제도 중 보육시설과 초등학교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은 학교 보육지원책으로 본다면,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들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공부방 등이 2003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신설된 것이다. 현재 전국에 2,810개의 시설이 있으며, 82,440명의 아동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www.jckh.org). 무료라는 특성상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수급권이나 차상위(저소득) 가정 등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아동을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하여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보호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우리사회의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곳으로 낙인찍혀 있어 이를 이용하는 아동이나 그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자생하던 공부방들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되면

서 각각의 지역아동센터는 각 센터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운영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도 어려운 실정이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적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 및 생활 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2005년 9월부터 46개소를 시범운영하여, 2006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189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다. 부모와 청소년의 신청을 통해 선발된 자에 한해 이용가능하며 아카데미 당 60명, 40명, 30명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평일에는 15:00~22:00, 토요일은 12:00~19:00, 휴무토요일은 09:00~16:00에 운영되고 1주 기준 기본공통과정 10시간, 전문선택과정 14시간, 급식 6시간이 포함된다. 이용가능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다(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www.youthacademy.or.kr). 이때 방과 후 서비스가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학생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방과 후 서비스에 대한 지역과 부모의 욕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초등학교 1~3학년 대상의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과 후 시설이나 서비스로는 청소년 공부방을 들 수 있으며, 아파트 단지나 지역 내 마을회관에 있는 공부방 등이 맞벌이 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내의 양육대체 시설이라 할 수 있다. 공부방의 경우는 국가 지원책이라기보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청소년공부방은 생활환경이 열악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학습 지도를 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생활상담, 특기 지도, 문화 활동, 캠프 및 수련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청소년 공부방은 저소득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한 지역사회 단체 및 개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관할 시·도에서는 운영 실태를 지도·확인하고 있다(윤소영 외, 2007).

이상 지역사회 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가정 균형을 위한 지원책은 아직 다양하고 충분한 형태의 서비스 형태를 갖고 있지 못하며, 저소득층 위주의 서비스에 한정됨을 발견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 방법 및 대상

이제까지 일-가정 균형을 위한 지역사회내의 서비스 관련 정책이 저소득층 위주인 것을 벗어나기 위해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대상자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고, 이로 인해 양육부담에 대한 지원을 보다 많이 요구할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1인 이상 있는 사무직 취업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비정규직 맞벌이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시간에 유동적인 여유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정규직 근무자를 제외한 상근직(9시~18시 근무) 맞벌이 주부로 대상을 한정하였으며, 배우자도 역시 상근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교대근무자(간호사 등)나 방학이 있는 자(교수 및 교사 등), 자영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조사 시기는 2008년 8월 27일부터 9월 21일 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 지역은 서울 및 수도

권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지는 개별 배포, 이메일, 전화, 면접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응답되었으며, 총 220부가 수거되어 결측치가 많거나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23부를 제외하고 197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 도구의 구성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가정-학교-기업-지역사회의 여러 측면에서의 자녀 돌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특성, 가정생활, 자녀 돌봄, 학교, 지역사회, 직장(기업), 일-가정 균형도 등의 영역으로 구성된 통합설문지를 마련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주로 자녀 돌봄과 관련된 지역사회 영역의 문항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사회의 자녀 돌봄 서비스 관련 실태 조사 문항은 돌봄 관련 보육비, 유료 보육서비스 이용 시 희망 형태, 위급상황 시 자녀 돌봄의 해결 방법, 자녀의 평일과 토요일 하루 시간 사용,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이용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 이유 등으로 구성되었다. 자녀의 평일과 토요일 하루 시간 사용은 자녀 돌봄의 항목을 제시하고 시간일지에 1시간 단위로 이들 항목에 해당되는 시간을 첫 자녀와 둘째 자녀의 경우(세 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초등 3학년 이하의 두 자녀)로 나누어 응답자가 직접 표기하도록 하였다. 돌봄 서비스의 종류, 위급상황 항목, 위급상황 해결 방법 항목, 돌봄 서비스 이용이유와 이용하지 않는 이유 항목 등은 신윤정 외(2007), 홍승아·김혜영·류연규·相馬直子·조순주·진미정(2007)의 연구 등을 참고하여 수정·보완 후 재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을 위해 SPSS 12.0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표 2〉 조사도구의 구성

영역	문항	문항 수
인구 사회학적 특성	- 응답자 연령(만) - 학력 - 월평균 가계소득 - 자녀 연령(만)(첫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 자녀수 - 거주지(시, 도/구, 군)	8
직업 특성	- 출퇴근 왕복시간 - 주당 평균 근로시간 - 직장규모 - 근무 연수 - 업무특성 - 휴가 시 대체인력 상태 - 지난해 유급휴가 사용일수 - 주 40시간 근무 실시 여부	8
지역 사회영역	- 돌봄, 학원·교육비 - 희망 보육 형태 - 위급상황 자녀 돌봄 실태 - 자녀 평일, 토요일 시간 사용(첫째, 둘째 자녀) - 돌봄 서비스 이용 및 불이용 이유, 만족정도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인식 여부	11
총		25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기초자료의 분석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본 연구 조사대상자인 주부들의 평균 연령은 35.2세, 학력수준은 대졸이 37%, 대학원이 24%, 전문대학 졸업이 20%로 대상자의 81%가 전문대졸 이상이어서 학력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가정의 월평균 가계소득도 맞벌이이기 때문에 617만 원 정도에 달하여 일반 도시근로자가계의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97)

문항	범주	N(%)	M(SD)
연령(만)	30세 미만	8(4.1)	35.2세(3.6세)
	30-35세 미만	80(40.6)	
	35-40세 미만	83(42.1)	
	40세 이상	26(13.2)	
학력	고졸이하	36(18.3)	-
	전문대졸	40(20.3)	
	4년제 졸	73(37.1)	
	대학원 이상	47(23.9)	
	기타	1(0.5)	
월평균 가계소득	400만원 미만	24(12.2)	616.7만원 (265.2만원)
	400-600만원 미만	67(34.0)	
	600-800만원 미만	43(21.8)	
	800만 원 이상	46(23.4)	
	삭제 및 무응답 ¹⁾	17(8.6)	
첫째자녀 연령(만)	3세 미만	28(14.2)	6.7세(3.5세)
	3-6세 미만	47(23.9)	
	6-9세 미만	58(29.4)	
	9세 이상	64(32.5)	
둘째자녀 연령(만)	3세 미만	26(13.2)	4.9세(3.0세)
	3-6세 미만	50(25.4)	
	6-9세 미만	32(16.2)	
	9세 이상	11(5.6)	
	해당사항 없음 ²⁾	78(39.6)	
셋째자녀 연령(만)	3세 미만	5(2.5)	3.0세(2.0세)
	3-6세 미만	4(2.0)	
	6-9세 미만	1(0.5)	
	9세 이상	0(0.0)	
	해당사항 없음 ³⁾	187(94.9)	
총 자녀수	1명	78(39.6)	1.7명(0.6명)
	2명	109(55.3)	
	3명	10(5.1)	
거주지	서울	89(45.2)	-
	경기, 인천	108(54.8)	
합계		197(100.0)	-

주¹⁾ 월평균 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N=2), 2000만원 초과(N=6)인 응답자는 결측치로 처리.

주²⁾ 자녀가 1명인 경우(N=78)에는 해당사항 없음.

주³⁾ 자녀가 2명인 경우(N=109)에는 해당사항 없음.

265만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통합 연구에서 직장에서의 가족친화정책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맞벌이 부부 모두 일반 정규직 상근직 회사원(9시~18시 정시 출퇴근을 하는)을 주 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고학력, 고소득의 편중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³⁾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돌봄 부담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가능한 한 돌봄의 부담이 큰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가 조사 대상이므로 첫째자녀의 평균 연령은 6.7세, 둘째 자녀의 평균연령 4.9세로 자녀들이 어린 편이었으며, 평균자녀수도 1.7명으로 일반가정의 0.6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균형과 관련하여 자녀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대상자의 직업 특성은 <표 4>와 같다. 출퇴근과 관련된 평균 왕복시간은 78.9분으로 1시간 20여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인 취업여성의 54분에 비해 보다 장거리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들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돌봄과 관련한 맞벌이 부모들의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업 여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8시간(2,882분)으로 근로기준법의 44시간에 비해 근무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고⁴⁾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23.4%로 과잉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의 특성에서도 반영되어 근무시간에만 업무에 집중하려는 경우가 다수(55%)인 반면, 퇴근 후 또는 휴일에 남아서 잔무를 처리하거나 집이나 직장에서 연장하여 일하는 경우가 41%나 되어

3) 통합연구에서 조사대상자와 배우자의 직종을 모두 일반 정규·상근직(초등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으로 한정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직업이 공무원, 연구직, 일반사무·관리직 등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4) 2007년 7월 1일 이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법정노동시간은 1일 8시간, 50인 이하 사업장 44시간, 50인 이상 사업장 40시간으로 나뉜다.

반 이상의 조사대상 주부들이 잔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의 규모는 소, 중, 대기업에 적절히 근무하고 있었으며, 평균 근무연수도 6.7년 이상으로 근속연수가 높아 중간관리직으로 올라간 취업여성주부들이 많았다. 조사대상자들의 근무형태의 경우 주40시간근무제를 매주 시행하는 직장(75.1%)이 많았으나 대다수의 취업주부들이(73.1%) 지난해에 유급휴가를 14일 미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급한 가사일이나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휴가 시에도 별도의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주로 동료들이 대신 분담하는 현상(66%)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직업 특성

(N=197)

문항	범주	N(%)	M(SD)
출퇴근을 위한 왕복시간	60분 미만	70(35.5)	78.9분 (54.0분)
	60-120분 미만	86(43.7)	
	120분 이상	41(20.8)	
주당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이하	57(28.9)	2,882분 (493.8분)
	41-50시간 이하	94(47.7)	
	50시간 초과	46(23.4)	
직장규모	소기업(50명 미만)	63(32.0)	4,196.7명 (13,975.1명)
	중소기업(50-300명 미만)	52(26.4)	
	대기업(300명 이상)	66(33.5)	
	무응답	16(8.1)	
근무년수	3년 미만	49(24.9)	80.7개월 (57.5개월)
	3-6년 미만	40(20.3)	
	6-9년 미만	26(13.2)	
	9년 이상	81(41.1)	
	무응답	1(0.5)	
업무특성	근무시간에만 집중	110(55.8)	-
	퇴근 후, 휴일, 직장에 남아 처리	52(26.4)	
	직장, 집에서 연장	29(14.7)	
	기타	6(3.0)	
휴가 시 대체인력 존재상태	동료들이 나눔	130(66.0)	-
	새로운 인력 투입	20(10.2)	
	대체인력 없음	39(19.8)	
	기타	8(4.1)	
지난해 유급휴가 사용일수	7일 미만	62(31.5)	9.4일 (6.2일)
	7-14일 미만	82(41.6)	
	14일 이상	40(20.3)	
	삭제 및 무응답 ¹⁾	13(6.6)	
	기타	13(6.6)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여부	매주 실시	148(75.1)	-
	격주 실시	23(11.7)	
	실시하지 않음	19(9.6)	
	기타	7(3.6)	
	합계	197(100.0)	

주¹⁾ 출산휴가(N=3)인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라 판단되어 결측 처리함.

무형태의 경우 주40시간근무제를 매주 시행하는 직장(75.1%)이 많았으나 대다수의 취업주부들이(73.1%) 지난해에 유급휴가를 14일 미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급한 가사일이나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휴가 시에도 별도의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주로 동료들이 대신 분담하는 현상(66%)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 자료의 분석

1) 평일과 놀토 지역사회 내의 자녀의 돌봄 서비스 이용여부와 돌봄 시간

지역사회에서의 자녀 돌봄 서비스의 이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첫 자녀와 둘째 자녀의 평일과 놀토 돌봄 서비스 이용여부와 평균 이용시간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평일의 자녀 돌봄 서비스 이용여부는 첫 자녀의 경우, 내가 돌봄이 가장 많았고(86.2%), 그 다음은 놀이방·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78.6%), 남편이 돌봄(49.0%), 학원(44.4%) 순으로 많이 이용하였다. 둘째 자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돌봄이 가장 많았고(88.2%), 그 다음은 놀이방·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79.8%), 남편이 돌봄(41.2%), 학원(26.1%) 순으로 많이 이용하였다. 평일의 돌봄 서비스 이용여부는 가족(주부와 남편)과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놀이방·어린이집·유치원·학교와 학원)를 적절히 나누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위의 평일의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첫 자녀와 둘째 자녀 모두 주부(나)가 돌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내가 돌봄 86.2%와 88.2%), 평일 돌봄 평균 시간은 주부가 각각 6.2시간과 6.1시간으로, 놀이방·어린이집·유치원·초등

학교의 7.3시간, 8.5시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들은 평일에 비교적 가장 많은 시간을 놀이방·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서 보내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친정식구와 시댁식구의 돌봄 이용률은 주부나 남편에 비해 낮으나 평균 돌봄 시간은 첫 자녀와 둘째 자녀 모두 가장 길었다(친정식구 6.7시간과 6.5시간, 시댁 식구 7.6시간과 7.0시간). 맞벌이 남편의 경우에는 친정이나 시댁식구에 비해서는 이용률(첫 자녀 49.0%와 둘째 자녀 41.2%)은 높으나 평균 돌봄 시간은 첫 자녀(4.2시간)와 둘째 자녀(3.9시간) 모두 적은 편이었다. 가사도우미나 사설 베이비시터, 친구·이웃의 돌봄은 이용률은 낮으나 평균 돌봄 시간이 첫 자녀 4.0~8.3시간, 둘째 자녀 6.0~8.5시간으로 상당히 장시간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원(교육)의 평균 돌봄 시간은 첫 자녀와 둘째 자녀가 각각 3.9시간과 4.3시간이었으며 유사한 돌봄 기관에 해당하는 유치원·방과 후 교실(3.5시간과 2.7시간)과 건강지원센터 아이돌보미(3.0시간과 3.0시간)에서도 비슷한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놀이방·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7.3~8.5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3.0시간~4.3시간을 앞의 기관들에서 보냄으로써 맞벌이 부모의 자녀들은 상당히 장시간 집 밖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평일의 경우 대부분 맞벌이 가정에서는 첫 자녀나 둘째자녀 모두 주로 놀이방·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서 가장 오래 있었고 부모의 퇴근 전까지 학원이나 방과 후 교실에서 시간을 보낸 이후에 주로 부모(주부나 남편)가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적은 이용률이지만 첫 자녀와 둘째 자녀 모두 가사도우미(13.3%, 12.6%)나 친정식구(25.5%, 16.8%), 시댁식구(19.4%, 20.2%)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평균 이용시간이 각각 8시간이상, 6시간이상, 7시간이상으로 거

의 놀이방·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시간(7~8시간)과 비슷할 정도로 장시간 맡기고 있었다. 이는 자녀가 하나일 경우와 둘 이상일 경우 학원 이용률에 차이가 나지만 가사도우미나 친정 및 시댁 식구의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라 이용비용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녀가 어릴수록, 즉 학원에서의 학습보다 돌봄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을수록 그리고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맞벌이 부모들은 친정, 시댁 식구 이외에 가사도우미의 이용이 가장 경제적이고 손쉬운 돌봄 대안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가사도우미의 이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할 때, 자녀의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되는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 내의 저비용의 다양하고 새로운 돌봄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중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나 사설 베이비시터, 학원(식사·돌봄 제공) 서비스는 평일에 극소수(1~5명)가 이용하였으며, 공동육아 프로그램이나 종교기관 주말 아이 돌봄,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등은 오히려 평일에는 이용하는 경우가 없었다. 이와 같이 이들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기관의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직 이들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홍보가 미비할 뿐 아니라 지역별로 서비스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 있으며, 또한 긴급, 일시적인 돌봄에 대해서만 이용 가능하고 한 달 80시간 이내, 또는 지역별로 40시간~120시간 사이로 한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 지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놀토의 자녀 돌봄의 경우에는 두 자녀 모두 주부(나)와 남편이 거의 전적으로 돌보는 경향이 있었다(내가 돌봄 96.8%, 96.5%, 남편 돌봄

〈표 5〉 평일과 토요일의 자녀 돌봄 서비스 유형별 이용여부와 이용시간 (빈도(%), 시간)

돌봄 서비스 유형		이용 요일		평일				토요일						
		자녀 순위		첫 자녀 (결측치=1)		둘째 자녀 (결측치=78)*		첫 자녀 (결측치=1)		둘째 자녀 (결측치=78)*				
		이용여부와 돌봄시간		이용 안함	이용 함	평균 시간	이용 안함	이용 함	평균 시간	이용 안함	이용 함	평균 시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가 족	아이들만 둔다	165 (84.2)	31 (15.8)	2.8	104 (87.4)	15 (12.6)	3.9	189 (96.4)	7 (3.6)	6.9	116 (97.5)	3 (2.5)	11.3	
	내가 돌봄	27 (13.8)	169 (86.2)	6.2	14 (11.8)	105 (88.2)	6.1	6 (3.1)	190 (96.9)	15.7	6 (5.0)	113 (95.5)	15.8	
	남편이 돌봄	100 (51.0)	96 (49.0)	4.2	70 (58.8)	49 (41.2)	3.9	82 (41.8)	114 (58.2)	12.6	56 (47.1)	63 (52.9)	12.0	
친 지	친정식구가 돌봄	146 (74.5)	50 (25.5)	6.7	99 (83.2)	20 (16.8)	6.5	176 (89.8)	20 (10.2)	10.6	110 (92.4)	9 (7.6)	12.1	
	시댁식구가 돌봄	158 (80.6)	38 (19.4)	7.6	95 (79.8)	24 (20.2)	7.0	190 (96.9)	7 (3.6)	11.5	118 (99.2)	1 (0.8)	7.0	
지 역 사 회 내 돌 봄 서 비 스	사 적 무 료	친구·이웃의 돌봄	190 (96.9)	6 (3.1)	4.0	115 (96.6)	4 (3.4)	7.3	194 (90.0)	2 (1.0)	3.0	118 (99.2)	1 (0.8)	4.0
		공동육아프로그램	196 (100)	-	-	119 (100)	-	-	195 (99.5)	1 (0.5)	5.0	117 (98.3)	2 (1.7)	4.5
		종교기관 주말아이돌봄	196 (100)	-	-	119 (100)	-	-	193 (98.5)	3 (1.5)	3.3	117 (98.3)	2 (1.7)	4.0
	사 적 유 료	가사도우미	170 (86.7)	26 (13.3)	8.3	104 (87.4)	15 (12.6)	8.2	189 (96.9)	7 (3.6)	9.7	115 (96.6)	4 (3.4)	11.0
		사설 베이비시터	191 (97.4)	5 (2.6)	7.2	116 (97.5)	3 (2.5)	6.0	196 (100)	-	-	119 (100)	-	-
		학원(교육)	109 (55.6)	87 (44.4)	3.9	88 (73.9)	31 (26.1)	4.3	179 (91.3)	17 (8.7)	3.3	118 (99.2)	1 (0.8)	4.0
		학원 (식사·돌봄 제공)	196 (100)	-	-	118 (97.2)	1 (0.8)	1.0	196 (100)	-	-	119 (100)	-	-
	공 적 보 육 기 관	놀이방·어린이집· 유치원·학교	42 (21.4)	154 (78.6)	7.3	24 (20.2)	95 (79.8)	8.5	185 (94.4)	11 (5.6)	5.4	105 (88.2)	14 (11.8)	6.4
		유치원·학교 방과 후 교실	172 (87.8)	24 (12.2)	3.5	113 (95.0)	6 (5.0)	2.7	193 (98.5)	3 (1.5)	6.0	118 (99.2)	1 (0.8)	3.0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194 (99.0)	2 (1.0)	3.0	118 (99.2)	1 (0.8)	3.0	196 (100)	-	-	119 (100)	-	-
	공 적 보 지 기 관	지역아동센터공부방	196 (100)	-	-	119 (100)	-	-	193 (98.5)	3 (1.5)	3.0	119 (100)	-	-

* 둘째자녀의 결측치(N=78)가 많은 것은 한 자녀 가정의 경우가 결측치로 포함되었기 때문임.

- 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는 빈도와 ()안의 백분율로, 돌봄 시간은 시간 수로 나타냄.

- 돌봄 이용여부에서 결측치가 많은 것은 이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도 이용 가능한 돌봄 서비스의 모든 종류를 조사함으로써 응답자의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58.25, 52.9%). 또한 돌봄 시간 역시 평일 주부 6시간 정도와 남편 4시간 정도에서 놀토에는 주부 15시간이상, 남편 12시간 이상으로 돌봄 시간이 거의 2.5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거의 전적으로 취업주부와 남편이 자녀를 돌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평일에 자녀 돌봄에서 이용률이 높았던 친정식구(10.6%, 12.1%)와 시댁식구(3.1%, 0.8%)의 돌봄 이용률이 확연히 줄었으며, 친정식구의 돌봄에 비해 시댁식구의 돌봄 이용률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평균 돌봄 시간도 평일보다는 많이 증가하였으나 친정식구(10.6시간과 12.1시간)에 비해 시댁식구(11.5시간과 7.0)의 돌봄 시간이 적은 편이었다. 반면, 놀토에 가사도우미의 돌봄 이용률은 소수였지만(3.4~3.6%) 돌봄 시간은 시댁이나 친정 식구에 준하는 정도로 비교적 장시간(평균 9.7~11시간)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놀토에는 취업주부와 남편이 전적으로 자녀를 돌봄으로써 놀이방·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을 이용률이 첫 자녀와 둘째 자녀가 각각 5.6%와 11.8%로, 학원에 가는 경우는 각각 8.7%와 0.8%로 줄어들었다. 돌봄 시간은 놀이방·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은 5.4시간과 6.4시간으로 확연히 줄었으나 학원시간은 3.3시간과 4.0시간으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인 학원(식사와 돌봄 제공)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사설베이비시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놀토에는 첫 자녀와 둘째 자녀 모두 없었으며, 첫 자녀만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을 소수 이용하였다(3건, 1.5%).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비교적 고가의 사적 돌봄인 학원(식사·돌봄 제공)이나 사설 베이비시터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적복지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이 모두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공동

육아프로그램이나 종교기관 주말아이돌보미, 친구나 이웃의 돌봄 등 품앗이 형태의 사적 무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소수 있었다(1~3건, 0.5%~1.5%, 이용시간 3~5시간).

놀토의 자녀 돌봄에서 특징적인 점은 평일에 비해 아이들만 두는 경우는 줄어들었으나(15.8%와 12.6% → 3.6%와 2.5%) 그 평균 이용시간은 첫 자녀와 둘째 자녀가 각각 2.8시간과 3.9시간에서 6.9시간과 11.3시간으로 늘어나 아이들끼리만 있는 시간이 2~3배정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놀토에도 아이들끼리만 있어 오랜 시간 방치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근거리의 공적 돌봄 기관이 돌봄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위급상황에서의 자녀 돌봄 서비스 이용실태

위급상황에서 자녀의 돌봄 서비스 이용에 관한 실태를 살펴 본 결과(<표 6> 참조), 가족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자녀들만 두거나 취업주부나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와 친척(친정이나 시댁식구)에 의해 해결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놀토(51.3%)나 휴가(50.3), 자녀의 질병 또는 예방접종(46.2%), 학부모 초청행사(44.2%), 급식당번이나 교통정리(27.9) 등의 경우에 취업주부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장 많이 자녀를 돌보고 있었으며, 임시방학이나 예정에 없었던 휴일이나 학교장 재량휴일, 갑작스런 출장이나 방학 등의 경우에는 친정식구나 시댁식구에게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위급상황에 대한 맞벌이 가정의 대안으로서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지원책이 아직 가족이나 친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되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위급 상황에서 돌봄의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들만 집에 두는

일-가정 균형을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자녀 돌봄 지원 실태에 대한 연구 - 서울, 경기지역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표 6〉 위급상황에서의 자녀 돌봄 서비스 이용실태

해결방법 위급상황	가족		친지		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						공적복지기관			기타			
	아이들만 둔다	본인 또는 남편	친정 식구	시댁 식구	사적 무료			사적 유료			공적보육기관				공적복지기관		
					친구, 이웃	공동 육아 프로 그램	종교기관 주말아이 돌봄	가사 도우미	사실 배이비 시터	학원 (교육)	학원 (식사· 돌봄 제공)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유치원, 학교의 방과후 교실		긴급가정 센터/아이 돌봄미 센터	지역 아동 센터	
임시 방학	18 (9.1)	17 (8.6)	61 (31.0)	49 (24.9)	6 (3.0)	2 (1.0)	0	16 (8.1)	2 (1.0)	17 (8.6)	1 (0.5)	10 (5.1)	10 (5.1)	0 (0)	0 (0)	0 (0)	2 (1.0)
놀토 (토요재택학습일)	9 (4.6)	101 (51.3)	27 (13.7)	18 (9.1)	5 (2.5)	1 (0.5)	1 (0.5)	7 (3.6)	0 (0)	8 (4.1)	0 (0)	1 (0.5)	0 (0)	1 (0.5)	1 (0.5)	1 (0.5)	1 (0.5)
예정에 없던 휴일 (신겨, 개교기념일)	20 (10.2)	44 (22.3)	45 (22.8)	32 (18.8)	7 (3.6)	0 (0)	0 (0)	16 (8.1)	2 (1.0)	9 (4.6)	1 (0.5)	3 (1.5)	5 (2.5)	0 (0)	1 (0.5)	1 (0.5)	2 (1.0)
급식당면이나 교통정리	5 (2.5)	55 (27.9)	28 (14.2)	13 (6.6)	6 (3.0)	1 (0.5)	0 (0)	9 (4.6)	2 (1.0)	2 (1.0)	0 (0)	2 (1.0)	2 (1.0)	0 (0)	0 (0)	0 (0)	14 (7.1)
갑작스러운 출장	6 (3.0)	20 (10.2)	81 (41.1)	53 (26.9)	7 (3.6)	1 (0.5)	0 (0)	16 (8.1)	3 (1.5)	3 (1.5)	0 (0)	3 (1.5)	5 (2.5)	0 (0)	0 (0)	0 (0)	3 (1.5)
학교장 재량 휴일	18 (9.1)	20 (10.2)	47 (23.9)	35 (17.8)	6 (3.0)	1 (0.5)	0 (0)	16 (8.1)	1 (0.5)	11 (5.6)	1 (0.5)	4 (2.0)	5 (2.5)	0 (0)	1 (0.5)	0 (0)	3 (1.5)
학부모 초청행사	7 (3.6)	87 (44.2)	26 (13.2)	16 (8.1)	1 (0.5)	0 (0)	0 (0)	5 (2.5)	0 (0)	5 (2.5)	0 (0)	1 (0.5)	1 (0.5)	0 (0)	0 (0)	0 (0)	11 (5.6)
방학	20 (10.2)	17 (8.6)	52 (26.4)	37 (18.8)	4 (2.0)	1 (0.5)	0 (0)	14 (7.1)	3 (1.5)	30 (15.2)	3 (1.5)	9 (4.6)	12 (6.1)	0 (0)	1 (0.5)	0 (0)	2 (1.0)
아이돌보미 또는 가사도우미의 결근	12 (6.1)	29 (14.7)	60 (30.5)	32 (16.2)	8 (4.1)	0 (0)	0 (0)	2 (1.0)	1 (0.5)	2 (1.0)	0 (0)	3 (1.5)	3 (1.5)	1 (0.5)	1 (0.5)	1 (0.5)	7 (3.6)
자녀의 질병, 또는 예방접종	2 (1.0)	91 (46.2)	53 (26.9)	31 (15.7)	6 (3.0)	0 (0)	0 (0)	10 (5.1)	1 (0.5)	0 (0)	0 (0)	1 (0.5)	2 (1.0)	0 (0)	0 (0)	0 (0)	1 (0.5)
임신이나 출산	1 (0.5)	37 (18.8)	80 (40.6)	30 (15.2)	3 (1.5)	0 (0)	0 (0)	14 (7.1)	7 (3.6)	2 (1.0)	0 (0)	2 (1.0)	2 (1.0)	1 (0.5)	1 (0.5)	0 (0)	5 (2.5)
휴가	2 (1.0)	99 (50.3)	36 (18.3)	21 (10.7)	2 (1.0)	0 (0)	0 (0)	6 (3.0)	3 (1.5)	3 (1.5)	0 (0)	3 (1.5)	3 (1.5)	0 (0)	0 (0)	0 (0)	1 (0.5)

(N=197)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 안전과 보호의 대비책이 필요한 것으로 고려된다. 이 같은 경우는 주로 임시방학(9.1%)이나 예정에 없던 휴일(10.2%), 학교장 재량 휴일(9.1%), 방학(10.1%) 등의 경우에 많았다.

지역사회의 무료의 사적 돌봄에 의존하는 경우인 친구나 이웃, 공동육아, 종교기관의 주말 아이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희소한 편이었다.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공동육아, 종교기관 아이 돌봄의 이용보다는 가까운 친구나 이웃에게 더 많이 맡기는 경향이 있고,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보다는 유료의 사적 돌봄에 해당하는 가사도우미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과거 친구나 이웃에게 위급 시 아이를 부탁할 수 있었던 상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과거보다 지역 내 사적 돌봄 체계가 사라지고 가족과 친지에게로 돌봄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공적 돌봄 기관에 해당하는 놀이방·어린이집·유치원·학교와 유치원·학교의 방과 후 교실은 비교적 긴 휴식기간에 해당하는 임시방학(5.1%, 5.1%)이나 방학(4.6%, 6.1%)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방학(15.2%)이나 임시방학(8.6%)에는 주로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원은 학교장 재량휴일(5.6%)이나 예정에 없던 휴일(4.6%), 놀토(4.1%) 등에도 많이 이용되어, 아이들을 돌보아줄 지역사회 내 지원책의 미비로 인해 오히려 학원이 본래 교육의 목적과 함께 돌봄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비교적 비용이 훨씬 저렴하거나 거의 무료인 공적 돌봄 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거의 이용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내 공적 돌봄 지지 기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비교적 고학력, 고소득에 해당되는 맞벌이 가정

많으므로 이들 기관에 대한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3) 돌봄 지출비용

조사대상 맞벌이 가정의 총 돌봄 지출비용은(<표 7> 참조) 월평균 105만 원 정도로 일반 가정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617만 원)의 약17.01%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중에서 돌봄 보육비는 월평균 60만 원 정도이고, 학원 교육비는 53만 원으로 나타나 돌봄 보육비에 약간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이는 본 조사대상자의 경우 첫째 자녀의 연령이 6.7세로 초등학교 입학 전 연령의 아동이 더 많았기에 나타난 결과라 여겨진다.

이러한 지출비의 부담은 희망하는 보육서비스의 형태에 반영되어 가장 희망하는 형태로 과반수이상(51.6%)을 희망하였고, 다음으로는 본인의 집에서 유료보육(38.8%)이 많았으며 돌보는 사람의 집에서 유료보육(5.9%)과 기타의 경우는(3.7%)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표 7> 돌봄 지출비

(단위: 만 원)

	표본수(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총 돌봄 지출비	122	0.00	350.00	104.78	59.50
돌봄 보육비	168	0.00	300.00	59.86	44.51
학원 교육비	150	0.00	200.00	53.07	37.61

4)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만족도 및 이용이유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와 그에 따른 만족도의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었다. 돌

봄 서비스의 이용여부 중에서 이용하지 않음의 응답이 많은 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이들 서비스의 제공이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돌봄 서비스의 이용 실태가 선행연구에서 비교된 적이 없으므로 각 서비스 종류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종류를 조사하여 무응답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여러 돌봄 서비스

중 이용 빈도는 낮으나 무료의 사적 돌봄 형태인 공동육아 프로그램(N=6)와 종교기관 주말 아이 돌봄(N=2), 유료의 사적 돌봄 형태인 사설 베이비시터(N=7), 식사·돌봄 제공 학원(N=1), 공공복지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N=2) 프로그램은 모두 100% 만족하였다. 이는 평소에 잘 알고 지냄으로써 급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신뢰가 형성된 경우

〈표 8〉 돌봄 서비스의 이용여부 및 만족도 (빈도(%))

돌봄 서비스		이용여부/만족도	이용하지 않음	이용함	이용 시 만족 정도		
					만족	불만족	무응답
친지	친정식구		125 (63.5)	72 (36.5)	67 (93.1)	-	5 (6.9)
	시택식구		154 (78.2)	43 (21.8)	40 (93.0)	2 (4.7)	1 (2.3)
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	사적 무료	친구, 이웃	181 (91.9)	16 (8.1)	14 (87.5)	1 (6.25)	1 (6.25)
		공동 육아프로그램	191 (97.0)	6 (3.0)	6 (100.0)	-	-
	사적 유료	종교기관의 주말 아이돌보기	195 (99.0)	2 (1.0)	2 (100.0)	-	-
		가사도우미	165 (83.8)	32 (16.2)	26 (81.2)	6 (18.8)	-
		사설베이비시터	190 (96.4)	7 (3.6)	7 (100.0)	-	-
		학원(교육)	140 (71.1)	57 (28.9)	36 (63.2)	13 (22.8)	8 (14.0)
	공적 보육 기관	학원(식사·돌봄 제공)	196 (99.5)	1 (0.5)	1 (100.0)	-	-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12 (56.8)	85 (43.1)	70 (82.4)	3 (3.5)	12 (14.1)
		유치원·학교의 방과 후 교실	165 (83.8)	32 (16.2)	24 (75.0)	6 (18.8)	2 (6.2)
		공적 복지 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195 (99.0)	2 (1.0)	2 (100)	-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192 (97.5)		5 (2.5)	4 (80.0)	1 (20.0)	-	

- 돌봄 서비스의 이용하지 않음이 많은 것은 이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도 이용 가능한 돌봄 서비스의 모든 종류를 조사함으로써 응답자의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거나 특별한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돌봄 서비스의 이용여부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유형들에 비해 친정식구나 시댁식구에 의한 돌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친정 36.5%, 시댁 21.8%), 두 경우 모두 이용 시의 만족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93.1%, 93.0%). 또한 시댁식구 보다는 상대적으로 친정식구에 대한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아무래도 취업주부가 친정식구에게 부탁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는 놀이방·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43.1%)의 이용도가 높고 만족도(82.4%)도 높게 나타났다. 학원(교육) (28.9%)과 유치원·학교 방과 후 교실(16.2%), 가사도우미(16.2%) 등은 그 다음으로 이용도가 높은 반면 서비스의 불만족도도 높아서(22.8%, 18.8%, 18.8%) 맞벌이 가정의 욕구에 맞추어 서비스 질 개선과 다양화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돌봄 이용료가 비교적 저렴한 지역사회 내 공공복지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나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의 이용 경험 이 매우 적은 것은(1.0%, 2.5%) 면접조사에서 아이돌보미의 경우는 아직 인식이 낮고, 신청을 해도 서비스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긴급 지원이면서도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 등 신청방법이 서비스 제공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모순점을 지적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신청을 해도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 배정되어 신청이 어렵다는 경우와 저소득층 자녀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면접조사결과 나타났다.

5) 지역사회의 자녀 돌봄 서비스의 이용/ 불이용 이유

자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를 살펴

보면(표 9참조), 친지인 친정 및 시댁식구와 공적 보육기관인 놀이방·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경우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서(53.8%, 28.7%, 20.7%)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유로 선택되었다.

이에 비해 놀이방·어린이집·유치원·학교(25.2%)나 학원(15.6%), 유치원·학교 방과 후 교실(13.0%) 등은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운영시간이 맞아서 이용하는 경우는 가사도우미(17.8%)와 학원(10.0%), 놀이방·어린이집·유치원·학교(9.0%) 등이 많았고, 전문성이 있어서 이용하는 경우는 학원(27.8%), 놀이방·어린이집·유치원·학교(10.8%), 유치원·학교 방과 후 교실(9.8%) 등 교육기관 이 많았다. 그 외의 이유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는 매우 희소한 편(1~3사례)이었다.

반면 자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친정이나 시댁식구는 주로 집과 먼 거리에 있어서 이용할 수 없었던(37.0%, 52.2%) 반면, 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 유형은 몰라서(또는 없어서)나 안심하고 맡길 수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맞춤형 서비스에 해당하는 학원(식사·돌봄 제공)(31.6%)이나 공적 복지기관인 건강가정센터 아이돌보미(67.0%)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48.8%), 사적 무료 서비스인 공동육아 프로그램(67.5), 종교 기관 주말 아이 돌봄(58.5%) 등의 프로그램은 대다수 몰라서 또는 없어서 이용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원 이외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들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알림으로써 자녀 돌봄의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본 연구에서도 조사

일-가정 균형을 위한 지역사회회의 자녀 돌봄 지원 실태에 대한 연구 - 서울, 경기지역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표 9〉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이용/불이용 이유 (빈도(백분율))

이용/ 불이용 이유	돌봄 서비스		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											
	천지		사적 무료		사적 유료			공적보육기관		공적복지기관		기타		
	친정 식구	친척 식구	친구, 이웃	공동육아 프로그램	종교기관 주말 아이돌봄	가사도우미	사실 베이비 시터	학원 (교육)	학원 (식사·돌봄 제공)	놀이방·어린이집·유치원·학교	유치원·학교		방과 후 교실	건강가정 센터/아이 돌보미
①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서	64 (53.8)	33 (28.7)	7 (7.4)	5 (6.0)	-	8 (7.9)	-	3 (3.3)	-	23 (20.7)	3 (3.3)	-	-	-
②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1 (0.8)	6 (5.2)	6 (6.4)	-	-	1 (1.0)	3 (3.3)	14 (15.6)	-	28 (25.2)	12 (13.0)	-	2 (6.1)	-
③ 운영시간이 나의 요구와 맞아서	3 (2.5)	2 (2.7)	2 (2.2)	-	-	18 (17.8)	2 (2.2)	9 (10.0)	-	10 (9.0)	5 (5.4)	2 (2.2)	-	-
④ 전문성이 있어서	-	-	-	-	-	-	-	25 (27.8)	1 (1.3)	12 (10.8)	9 (9.8)	-	-	-
⑤ 비용이 저렴해서	-	1 (0.9)	-	1 (1.2)	-	1 (1.0)	-	1 (1.1)	1 (1.3)	-	4 (4.3)	-	-	-
⑥ 식사·간식의 질과 위생이 좋아서	-	-	-	-	-	-	-	-	-	1 (0.9)	-	-	-	-
⑦ 시설이 좋아서	-	-	-	-	1 (1.2)	-	-	-	-	2 (1.8)	1 (1.1)	-	-	-
⑧ 보육교사·담당자가 마음에 들어서	-	1 (0.9)	-	-	-	2 (2.0)	-	-	-	3 (2.7)	1 (1.1)	-	-	-
⑨ 기타	-	-	-	-	-	1 (1.0)	-	3 (3.3)	-	2 (1.8)	-	-	-	-

(표 9) 계속

이용/ 불이용 이유	돌봄 서비스		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													
	친지		사적 무료		사적 유료			공적보육기관			공적복지기관		기타			
	친정 식구	시대 식구	친구, 이웃	공동육아 프로그램	종교기관 주말 아이돌봄	가사 도우미	시설 베이비 시터	학원 (교육)	학원 (식사· 돌봄 제공)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학교	유치원· 학교 방과 후 교실	건강가정 센터/아이 돌보미		지역아동 센터공부방		
이용 하지 않는 이유	①	안심하고 말길 수 없어서	4 (3.5)	26 (27.7)	7 (8.4)	10 (12.2)	25 (24.8)	37 (40.2)	6 (6.7)	23 (30.3)	7 (6.3)	6 (6.5)	6 (6.6)	11 (13.4)	1 (7.1)	
	②	집과 먼 거리에 있어서	44 (37.0)	8 (8.5)	2 (2.4)	1 (1.2)	1 (1.0)	-	-	1 (1.3)	-	-	1 (1.1)	6 (7.3)	-	
	③	희망시간에 이용할 수 없어서	5 (4.2)	17 (18.1)	4 (4.8)	7 (8.5)	1 (1.0)	5 (5.4)	5 (5.6)	8 (10.5)	8 (7.2)	17 (18.5)	11 (12.1)	4 (4.9)	1 (7.1)	
	④	전문성이 없어서	-	1 (1.1)	2 (2.4)	3 (3.7)	1 (1.0)	3 (3.3)	-	-	-	2 (2.2)	2 (2.2)	6 (7.3)	-	
	⑤	비용이 비싸서	-	-	-	-	32 (31.7)	25 (27.2)	4 (4.4)	5 (6.6)	3 (2.7)	2 (2.2)	1 (1.1)	-	-	
	⑥	몰라서, 또는 없어서	-	19 (20.2)	56 (67.5)	48 (58.5)	8 (7.9)	12 (13.9)	9 (10.0)	24 (31.6)	4 (3.6)	11 (12.0)	61 (67.0)	40 (48.8)	8 (57.1)	
	⑦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서	-	-	1 (1.2)	4 (4.9)	1 (1.0)	3 (3.3)	2 (2.2)	4 (5.3)	3 (2.7)	7 (7.6)	2 (2.2)	1 (1.2)	-	
	⑧	기타	2 (1.7)	8 (8.5)	5 (6.0)	8 (9.8)	1 (1.0)	2 (2.2)	9 (10.0)	9 (11.8)	5 (4.5)	12 (13.0)	5 (5.5)	9 (11.0)	4 (28.6)	
	결측값		78	82	103	114	115	96	105	107	121	86	105	106	115	183

대상 가정 중 아는 경우가 약 1/4정도(23.8%)로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76.2%)인 것으로 나타나 자녀 돌봄 서비스 기관들의 대민홍보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그 한 예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수행되고 있지만 서비스 개시와 홍보가 2007년 이후 만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아직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국 232개중 77지역에만 설치된 상태이므로 아직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다양한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을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10세 이하 자녀를 1명 이상 둔 상근직 맞벌이 가정으로 한정하였으며 맞벌이 가정의 평일과 놀토 및 위급 상황에서의 지역사회 자녀 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와 돌봄 지출비용, 돌봄 서비스의 이용만족도 및 이용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전술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자녀 돌봄 정책 지원에 대한 결론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일에는 가족과 친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이용률이나 이용시간이 다양하게 이용되는 편이나 놀토에는 친지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이용이 줄어들고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에게 돌봄이 집중되어 부모들이 심리적 부담과 육체적 피로를 많이 느끼고 있다. 따라서 놀토에 부모들의 자녀 돌봄 관련 부담과 피로를 줄여주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다양

한 양육친화적 정보와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내에서 제공되는 이러한 정보와 프로그램들이 주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홍보되어야 한다.

현재 일-가정 균형을 위한 가사 및 자녀양육, 가족 돌봄 관련 정보를 총체적으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주체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홈페이지인 패밀리넷을 통하여 양육관련 상담 및 부모교육 관련 정보들이 제공되어 지역 내 돌봄 관련 정보 및 교육이 24시간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일부 양육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생애주기별 부모역할에 대한 정보와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종합적이지 못하고 단편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가족 양립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할 통합 서비스 지원망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망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의 품앗이 교환이 가능한 카페(혹은 동아리)가 운영된다면 육아의 욕구 충족을 넘어서 다양한 주민 주도적, 주민 자치적인 물물교환 시장, 아나바다 시장, 정보공유의 장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지역 내의 아이들에게 위험한 시설물, 유해한 환경, 아동관련 범죄 등을 방지할 마을 주민끼리의 정보공유 채널이 됨으로써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위급상황에서의 자녀 돌봄 실태를 살펴본 결과, 가족(주부나 남편)이나 친척에 의해 해결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은 편이며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지원책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지역사회 돌봄 기관 중 공적 돌봄 기관으로는 놀이방·어린이집·유치

원·학교와 유치원·학교의 방과 후 교실이 비교적 긴 휴식시간, 예를 들어 임시방학이나 방학에 가끔 이용될 뿐이며, 위급 상황에서 학원에 가는 경우가 많아 학원이 교육의 고유 목적 외에 지역사회 내 돌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놀토와 위급 상황에서 자녀들끼리 방치되는 가정을 위한 돌봄 지원체계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이돌보미의 주말 돌봄 급여 강화, 또는 주말 활동이 가능한 아이돌보미 확보 방안을 통해 아이돌보미들의 활동이 주말에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즉 일-가정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공적 돌봄 서비스 지원의 확대와 다양화가 필요하다. 또한 아이돌보미 이외에 현재 지역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공적 서비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들이 놀토, 주말, 위급 시에 보다 활용가능 하도록 제도적 보완과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경우 예산 증액을 통해 저소득층의 요구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함께 일반 가정의 요구에 맞춘 긴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지원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아카데미 등을 통해 방과 후 지원, 놀토 지원이 가능하기는 하나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한 긴급 서비스 제공은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의 수혜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야간, 주말 야간, 특수한 돌봄이 요구(영아, 장애아, 입원, 환아 및 가정의 특수상황 등)되는 상황 등에서 모든 가정에 긴급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여와 처우 개선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아이돌보미의 양성과 공급체계가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아이돌보미 서비

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돌봄 서비스 지원체계의 정교화와 함께 전국 시군구에서 모두 균등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일환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가 확대되어야 한다. 즉 인구별, 또는 아이돌보미 요구인원 대비 예산 책정의 차별화와 실제 보육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의 아이돌보미 양성과 연계 방법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맞벌이 가정의 총 돌봄 지출비는 전체 월평균소득의 약 17.0%를 차지하여 가계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 가정에서 돌봄 보육비가 학원교육비에 비해 약간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보육비 부담으로 인해 맞벌이 부모들은 돌봄 대체에 있어서 공공시설보육을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돌봄 지원 정책은 보육비 부담이 줄 수 있도록 공적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보다 많이, 맞벌이 가정을 포함하여 보다 보편적인 대상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국가적 지원이 요보호 대상, 즉 한 부모 가정이나 저소득 가정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을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일-가정 균형 지원체계가 미미한 상태이다. 본 연구 결과 맞벌이 부부들이 양육과 관련해서 아직도 부모, 친척, 가사도우미에게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부모와 친척에 의한 양육지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가사도우미의 조달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에서의 보편적인 대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의 지원 확대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특히 어린이집의 방과 후 시설에 비해 보육률과 이용률이 저조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식사와 야간 보육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또한 가정 내 보육을 원하는 영아에 대한 서

비스 정책,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에게 나타난 자녀 숙제 지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가정 학습 지원, 학원 송영, 일상적인 바른 생활습관 지도 (바른 말씨, 식사 예절 등), 학습 준비물 챙기기, 갑작스러운 임시 휴교나 체험학습에 따른 준비물 챙기기, 급식 도우미 활동, 녹색 학부모 활동, 학부모회의 참가, 학부모 참여 수업 등에 대한 다각적인 서비스 지원이 요청된다.

넷째, 지역의 다양한 돌봄 서비스 중, 최근 돌봄 지원을 위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공동육아 프로그램이나 종교기관 주말 아이돌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식사·돌봄 제공 학원 등의 이용률은 낮으나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 다양한 욕구에 맞춘 돌봄 서비스의 다양화와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재정적 지원 없이도 자녀 돌봄의 공동 목적 하에 지역주민들끼리 자생적 운영을 하고 있는 품앗이 육아, 공동 육아 및 가족 친화 마을 등이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일-가정 균형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도 유용할 것이다(정지영·조성은, 2008).

한 예로써 다양한 욕구를 지닌 가족들에게 생애주기에 따라 연령별, 유형별 수요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환경을 제공하는 양육친화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가정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아동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동 분담하는 마을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주민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초기에 국가 또는 기관이 개입하여 주민들의 잠재된 요구를 일깨움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다.

다섯째, 친정과 시댁의 자녀 돌봄 서비스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집과 먼 거리에 있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들은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혹은

운영 시간이 맞거나 전문성이 있어서 이용하였으나 잘 모르거나(또는 없어서) 안심할 수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돌봄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돌봄 관련 문제에 대해 상호 연계활동을 주도해갈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공적 돌봄 지원 기관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고 아이돌보미 양성체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일-가족 균형을 위한 직접적인 돌봄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서울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맞벌이 방과 후 교실’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교실이 보충학습과 특기적성위주의 교육이며, 2~3시에 끝나서 그 이후 부모가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방치될 수밖에 없는 3학년 이하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과 후 교실은 센터 내에서 직접 아동을 돌보고 학습지도와 다양한 정서치료 프로그램을 함께 병행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학습과 정서 부분의 욕구를 동시에 채워주고, 교육과 치료를 동시에 실시하여 아동의 정서 불안증을 감소시키고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하는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여 부모가 퇴근하고 아이를 데려갈 수 있도록 저녁식사 제공과 함께 저녁 9시까지 운영함으로써 다른 방과 후 교실과는 운영방식이 차별화되어 있다. 또한 일상생활 교사가 따로 있어 학원 연계, 병원 통원치료, 예절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지원을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새로운 돌봄 서비스지원 형태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정지영·조성은, 2008)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개발을 통해 다양한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의 정책적 사업을 시도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국정브리핑(2007). 서울 성미산 마을 동네 아이들 함께 키워요. 국정브리핑 2007. 2. 18.
- 2) 대한민국정부(2006).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0.
- 3) 보육정보센터. www.educare.gyeonggi.go.kr.
- 4) 성미산. www.sungmisan.net.
- 5) 성미산 마을의 역사와 현재. www.mapocoop.org/data/pds.htm.
- 6) 신윤정 외(2007).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 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 활용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7) 아이돌보미지원사업. www.idolbom.or.kr.
- 8) 윤소영, 정지영, 김효은, 이승미, 조성은, 김명희(2007). 맞벌이 가족의 자녀 방과후 돌봄 사업운영 모델 개발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9)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http://www.jckh.org.
- 10) 정지영, 조성은(2008). 일-가정 균형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에 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21-39.
- 11) 조선일보(2008.5.22.) “WHO “한국 출산율 세계 최하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22/2008052200021.html
- 12) 주간조선(2008.11.17. 2030호) “2018년, 한국”. 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1/11/2008111100798.html
- 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http://www.youthacademy.or.kr
- 14) 최은영(2007). 가족정책의 방향-일-가족 양립과 일-생활 균형의 추구. 한국가정관리학회 2007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111-134.
- 15) 한겨레21(2002.1.30. 395호). 공동육아에 참여하려면.
- 16) 홍승아, 김혜영, 류연규, 相馬直子, 조순주, 진미정(200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 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접수일 : 2009년 1월 15일
 - 심사일 : 2009년 1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2월 20일